

성경은 동성애에 관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는 쉬운 답과 어려운 답이 있다.

쉬운 답

분명하게 동성 행위를 언급하는 거의 모든 성경 구절들은 동성 연애를 비 정상적인 성적 표현으로 취급한다 - 여기서 말하는 비정상은 도덕성과는 상관없는 비정상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비정상을 뜻한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8:22 에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써있고 레위기 20:13 에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써있다.

창세기 19 장에 나와 있는 소돔에서의 롯에 관한 이야기나 사사기 19 장에 나와있는 기브온에서의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레위기에 나오는 위의 두 구절이 지금 교회에서 하려는 분별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세기와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 들은 다양한 면에서 도덕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둘째로, 그 두 이야기들은 동성애의 문제점 보다는 오히려 성폭력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지어 에스겔 16 장(49-50)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 소돔의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다. 셋째, 동성간의 성 행위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비탄을 받아 마땅한 폭력이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이 두 이야기 안에 동성간의 사랑과 끌리는 마음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

로마서 1:(21-25)26-27 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일들 중의 하나로 동성간의 섹스를 말하고 있다. 그들의 수치스러운 욕망에 버려진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9-11 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디모데전서 1:9-11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남색 (sodomites)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arsenokoites 를 번역한 것인데 그와 동일한 단어가 고전 6:9 에도 나온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이전의 그리스 서적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의미는 매우 명확하다. 이 단어의 의미는 “남자와 동침하는 남자” 이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나온 두 구절과 신약 성경에 나온 세 구절은 동성 행위에 관해 매우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그 다섯 구절 모두에서 성경은 동성 간에 발생하는 성적 행위 표현으로 보이는 것들을 비난하고 있다.

어려운 답

성경에서 지적하는 것을 다양한 방면에서 보는 것과 성령이 오늘날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이 구절들을 읽는 방법을 알게 되면 어려운 답이 나온다. “하지만 이 다섯 구절들이 이렇게 명확한데 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라고 반대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가?

이 구절들이 겉으로 보이는 만큼 단순 명료하지 않은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도덕적 분별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

첫째,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형성하는데 미치는 문화의 영향을 지나치게 과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행위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100 년 후에 보면 그 지적이 문화적 차이에 의한 것이었던 경우들이 많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문화의 영향을 받아왔다. 우리가 그 문화를 형성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18 장과 20 장을 보면 그런 문화적 감성들의 증거가 나타난다. 두장 모두 동성간의 섹스를 묘사하기 위해 가증 (그리스어로 toebah)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Toebah 라고 표현한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가증한 행위였다 (창 43:32).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목축도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가증한 것이었다 (창 46:34). 신명기에 보면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거나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 것도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고 (22:5) 창기가 번 돈을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23:18). 그러나 특정 행위가 정확히 누구에게 가증되게 여겨지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은 구절들도 있다 (예: 레 18:22; 20:13). 비록 레위기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모두에게 가증되게 여겨진다고 분명히 암시하고 있지만 창세기 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도 가증하게 여긴다고 암시하고 있지 않다 (창 43:32; 46:34). 종합해보면 첫째,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문화적 감성에서 나오고 둘째,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몇 특정한 문화적 감성들을 하나님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문화를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분적으로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라는 부르심이다. 이것은 낯선 땅에서 순례자로, 이방인으로 살라는 부르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특정 문화 안에서 제자의 삶을 산다. 우리는 문화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문화를 초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복잡한 문제이다: 우리의 신실함을 표현함에 있어서 단순히 문화를 피해갈 수도 없고 성령님의 음성으로부터 우리의 문화적 감성을 분리해 내는 것이 어려울 때도 종종 있다. 소외받은 사람들 - 세리, 창기 그리고 다른 모든 사회적 약자들 - 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당시는 스캔들 거리였다.

성도덕과 관련하여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

성경을 단순하게 읽지 못하는 두번째 이유는 성경으로 부터 성도덕을 추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신약 성경은 한목소리로 성적 타락, 그리스어 porneia, 을 피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porneia 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성적타락을 정의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 간음이나 자신의 어머니나 계모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혼외 정사는 잘못이다.

구약성경에서 믿음의 아버지들은 여러명의 아내와 첩까지 있었다. 당시는 남성우월주의 시대였고 여성차별에 대해 신경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다. 성적타락이 아니라 언약이행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유다의 아들 오난이 죽은 이유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다 (창 38). 사실상

구약성경은 성도덕보다는 언약이행의 의무를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다. 성적타락을 주의하도록 가르치는 부분에서는 신약성경이 구약성경보다 한발 앞서 가지만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신약이나 구약모두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점이 매우 중요하다.

성결 규정에 대한 한결같은 입장

성경을 단순하게 읽지 못하는 세번째 이유는 특히 레위기 17-26 에 나오는 성결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우리는 왜 이 성결 규정의 일부분만 지키는가? 면과 폴리에스테르를 섞어 만든 옷감과 같은 혼합 섬유로 만든 옷을 입는 것 혹은 돈을 빌려줄때 이자를 받는 것 혹은 토요일에 일을 하는 것이 부도덕한 죄라고 설교하는 목사를 나는 한번도 본 적이 없다. 왜 그런가? 우리가 성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성경이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아니다. 성경은 혼합섬유로 만든 옷을 입는 것과 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를 받는 것이 악하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더이상 이런 것들에 대해 규제를 받지 않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합의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지난 수십세기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 한때는 미국 교회들이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축복하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을 했고 또 어떤 때는 세상 풍속을 따라 옷을 입는 것으로 부터 교회 멤버들을 지키기 위해 (뒤 돌아 보면 이 문제는 대부분 여성들이 그 대상이었다) 교회가 어디까지 해야하는가 라는 문제를 놓고 일부 교회들이 고민하기도 했다. 우리는 분별을 위한 이런 고민을 회피하려고 하기 보다는 계속해서 분별의 길을 추구하며 가야한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대신에 영적 판단 없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만 살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 중에는 살아남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녀는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21:18-21 을 보라).

마태복음 19:12 과 고자들

성경을 단순하게 읽지 못하는 네번째 이유는 마태복음 19:12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났을 때 제자들은 놀라움을 표시한다. 만약에 예수님이 옳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결혼한 부인에 대해 저야할 의무는 너무나 중요해서 절대로 가볍게 결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자들이 내린 결론이다. 예수님도 여기에 동의하시는 것 같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마 19:11-12).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분별을 위해 이것이 관련이 있는가? 두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은 없다. 비록 내가 여기서 이 어려운 구절을 자세히 풀어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생각에 예수님은 일반적인 독신이 아니라 성적 금욕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것 같다.

고자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대화 혹은 논쟁이 구약 성경에 나온다. 몇몇 성경의 저자들은 고자를 신체적 결함으로 간주하고 그를 회중으로부터 배제시켰다 (신 23:1; 레 21:17-23). 이사야 56 장은 또 다른 견해를 보여준다: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고자는 기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회중에의해 받아들여질 자격이 있다 (사 56:3-5). 문맥을 보면 마태복음 19 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적인 만족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신다. 즉, 금욕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하기에 아무에게나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성도덕과 관련해서는 성경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말로 오해할까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나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훨씬 더 성경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분별이 쉽지는 않지만 모든 일에 한결 같이 성령님의 인도아래 성경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